

고유가·신냉전 시대의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tjkim@ricon.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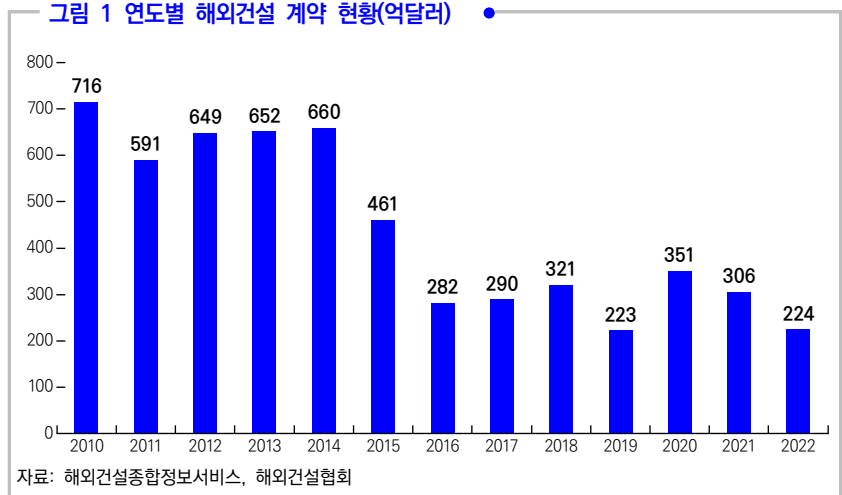
- I. 서 론
- II. 신냉전·고유가 시대의 도래
- III. 신냉전·고유가 시대의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 IV. 결 론

5

I. 서 론

최근 해외건설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06억 달러로 고점대비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연도별 해외건설 계약 현황(억달러)



이렇게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 외부요인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2015년 이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었다는 것과 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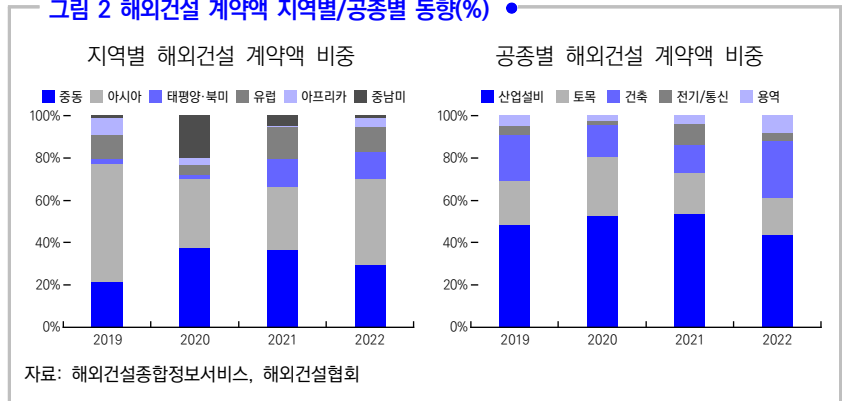
2년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 정부들이 보건과 복지의 지출이 늘어난 것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환경요인에 대응하지 못한 국내 건설산업의 전략과 역량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년간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공종별로는 산업설비가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즉 지역별 편중화와 공공발주 중심인 플랜트 위주로 수주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유가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나라 해외건설 주력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외부환경 요인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의 위기이자 기회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림 2 해외건설 계약액 지역별/공종별 동향(%)



II. 신냉전·고유가 시대의 도래

1. 신냉전 도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기간에 결착날 것이라는 예견과 달리 전쟁 발발 7개월이 넘는 지금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초기의 러시아의 급속한 직격과 달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 공략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띄우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제1 우선 전략목표가 크림반도의 육로 연결망 확보를 통한 흑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물론 전쟁에 의해 잃게 될 인명피해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는 지금의 국제사회에서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반대로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군사개입은 전역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및 NATO는 직접적인 군사개입 보다는 무기지원과 경제 제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 동향 ●



경제 제재는 크게 수입 제한, 수출 제한 그리고 금융시장의 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제한은 러시아산의 국내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 경제 제재의 핵심 중 하나이다. 러시아는 원유, 가스, 광물 등 천연자원 주요 수출국이며 수출의 2/3, 러시아 예산의 50%가 천연자원 수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1차 상품에 대한 대규모 규제는 과거 냉전시대에도 찾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러시아가 대표적인 산유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산 수입규제는 전세계에 대규모 에너지 부족 현상을 도래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출 제한은 러시아로 수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가를 중심으로 전자(반도체 등) 및 정보관련 첨단 제품 7개 분야 57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제한은 은행에 대한 규제와 외환시장에서의 규제를 들 수 있다. 은행에 대한 규제로는 우선 미국과 유럽 은행에서 러시아 은행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계좌에서 입출금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과 SWIFT¹⁾ 규제로 인해 은행의 결제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또한 외환시장

1)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국제 은행간 금융 통신 협회: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 송금을 위해 만든 국제기구로 SWIFT 결제 망에서 퇴출되면 수출

의 규제를 통해 러시아가 달러나 유로화, 파운드화 등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국제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에 냉전(Cold War)이라는 오래된 단어를 다시 불러왔다. 2차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설립은 냉전의 시작을 알렸다. 냉전체제는 40여년 후인 1991년에 종식되었다.

다시 30년이 지나 냉전은 신냉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팽창정책과 중국·미국의 분쟁은 냉전이라는 단어를 다시 불러왔고 이는 이념으로 대립하였던 지난 냉전체제와 구분하기 위해 '신(新)냉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념으로 분리되었던 지난 1차 냉전과 달리 신냉전은 민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인 대립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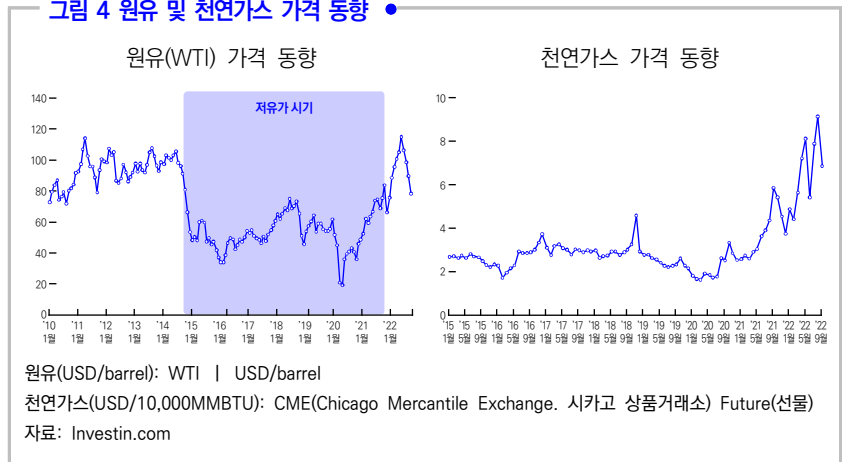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세계 교역 및 물류망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차 상품의 무기화와 2차·3차 제품의 독자공급망 구축이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신냉전 이전의 체제 하에서는 에너지와 식량, 기타 자원 등이 세계화 추세에 맞게 공급되었으나 진영 간의 교역규제는 이러한 1차 상품의 가격 상승은 물론 원활한 공급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또한 반도체 등 산업성장에 필수적인 2차 상품은 국가내 또는 최소한 우호진영내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고유가 시대의 도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과 이에 대한 러시아 경제제재는 결국 세계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에너지 관련 원자재인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을 살펴보면, 원유는 러시아의 군사 배치 이전에 70달러 수준에서 2022년 5월 말 114달러로 50% 가량 상승하였고 천연가스는 '21년 12월 3.7달러에서 8월 9.1달러로 2.4배 상승하였다. 원유가격은 최근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천연가스 가격은 겨울이 오기 시작하며 하락세가 커질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대금의 결제가 늦어지게 되어 국제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경제적 타격을 받음. 과거 북한과 이란이 제재의 일환으로 SWIFT 결제망에서 퇴출시킨 사례가 있음

그림 4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동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상승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은 건설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직접적으로는 건설공무원가 상승 및 공기지연을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조 구조가 대부분(20년 기준 95%)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단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자재는 철강으로 볼 수 있는데 철광석 가격의 인상은 건설공사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과 같이 철강재 가격 인상이 50% 이상 높아지게 되면 전체 건설공사비의 약 5%가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활용되는 시멘트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시멘트 생산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이며, 우리나라의 시멘트 업체의 연료는 유연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국제 유연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발발 이전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였다가 최근 등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러시아 제재가 장기화 될수록 이러한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수급이 문제가 될 경우 공공 및 민간 모든 분야에서 원하는 수준의 공급량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사원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물론 공기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 이외에도 발전단가 상승, 건설기계 가격 상승과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 원가 상승 요인이 많아 공사 관련 직접비는 물론 간접비의 상승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Ⅲ. 신냉전·고유가 시대의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1. 신냉전과 고유가가 지닌 기회요인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해외진출 주요 국가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이다. 2015년 이후의 저유가 시대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해외건설시장의 위축을 가져왔으나 이번 신냉전과 고유가가 불러온 외부요인 변화는 기존의 주력시장에서의 회복세는 물론 해외 건설시장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강세를 지니고 있던 중동 지역 및 산유국 산유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원 확보 분을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발주하지 못했던 인프라시설과 산업설비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산유국들은 높아진 유가로 인프라 투자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것이며,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산유국들에게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신냉전 체제로 인해 상대진영 국가 간에 전략적 2차 상품 공급망 구축을 위한 오프쇼어링 기조가 확산되면서 선진국에서도 산업설비 발주 등대가 예상된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천연가스 중심으로 산업설비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및 여러 제조업들은 미국 내에 직접 투자할 것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에 대한 제조업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낮추도록 산업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외에 그동안 지정학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주변의 국가들의 위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북방 국가들은 러시아 침공 이후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회색지대로 역할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막대한 러시아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우회지대가 필요하며, 막혀진 서방루트가 아닌 동방루트를 개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을 연계하는 철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기존의 내륙국가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세분화된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신냉전 이전의 글로벌 시대에서는 국가간 자원과 재화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구분할 경우, 선진국/개도국 또는 지역별 시장으로 구분

IV. 결론

하는 것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었으나, 신냉전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추가된 이후에는 좀 더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선진국 시장은 북미 시장과 유럽대륙 시장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리쇼어링 기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의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진출에 최대한 연계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유럽 대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에너지 이슈로 천연가스의 공급망 확대를 위한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터미널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수익성은 크지 않으나 기술과 원가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유국은 우리의 주력시장으로 고유가 기조 및 유럽발 에너지 이슈로 천연가스 중심의 플랜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에너지 수출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며, 미루어졌던 인프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연계된 다기능 인프라 진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개도국 시장을 세분화 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통상 우회를 위한 회색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높아질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투자전략으로 중장기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의 동남아시아 및 기타 대륙은 ODA 사업을 통해 단기적인 이익 보다는 인프라 표준의 선점, 향후 시장 가능성을 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 1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시장 구분	세부시장	활성화 전략
선진국	북미대륙	리쇼어링 시장 확보
	유럽대륙	천연가스 설비 시장 개척
산유국	중동 및 인도네시아	에너지 설비 및 다기능 인프라 진출
개도국	중앙아시아	회색지대 투자전략
	동남아시아 및 기타대륙	ODA 투자전략

코로나팬데믹이라는 글로벌한 재앙이 사그러드는 시점에서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전쟁이라는 재앙이 시작되었다. 세계는 안도감을 느낄새도

없이 많은 희생들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진출은 단순히 국가와 산업 이해관계자의 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비극 위에 다시 세계의 안정화를 기여한다는 점에서 해외건설시장을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전쟁이후 많은 것을 이룩해 내었으며, 이러한 성공은 건설산업의 기여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다시금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이 이번에는 세계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미국 전쟁연구소
2. 한국자원정보서비스
3.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협회
4. Investin.com